

표암 강세황의 서풍

이완우*

- I. 강세황 글씨 기록: 「豹翁自誌」와 「先君行狀」
- II. 표암 서풍의 기반: “書法二王 雜以米趙”
 - 1. 東晉 二王의 고법
 - 2. 北宋 米芾의 서풍
 - 3. 元 趙孟頫의 서풍
 - 4. 明代 諸家의 서풍
- III. 조선 후기 18세기 書藝史와 강세황

I. 강세황 글씨 기록: 「豹翁自誌」와 「先君行狀」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 윤5. 21~1791. 1. 23)은 54세 때인 1766년 가을에 자신에 대한 글을 남겼다. 사후에 남에게 묘지나 행장을 구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평일의 대략을 적어두는 것이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뜻에서였다.

이 글에서 강세황은 자신의 호의 유래와 성씨·본관·이름·자(字), 아버지·할아버지·증조·시조(始祖) 및 외조, 자신의 출생과 어릴 적의 일화, 아내 진주유씨(晉州柳氏 1713~56)의 성품, 큰형 세운(世胤 1684~1741)의 귀양으로 벼슬길을 버리고 옛 문장을 깊이 공부한 것, 부친 강현(姜鏡 1650~1733)과 모친 광주이씨(廣州李氏 ?~1740)의 사망, 이후 안산(安山)으로 이사한 일과 자신의 서화와 성격에 대해 적었다. 또 1763년 둘째아들의 과거합격 때 자신이 문장에 능하고 서화를 잘 한다는 신하의 말에 영조(英祖 1694~1776)가 “말세에 인심이 사나워 어떤 사람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이 논문은 ‘표암 강세황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2013. 7. 5) 발표문을 보완한 것임.

1 이 말을 영조에게 아뢰신하는 영의정 洪鳳漢(1713~78)이었다.

혹 천한 기예(賤技)라 업신여길까 염려되니 다시는 그림을 잘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사흘 동안 눈물 흘리며 그림붓을 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일, 안산에서의 평온한 일상, 네 아들 인(寅 1729~91)·완(完 1739~75)·관(寬 1743~1824)·빈(賓 1745~1808)의 교육, 스스로 화상(畫像)을 그린 것과 지문(誌文)을 지은 이유를 적었다. 그중 자신의 회사(繪事)와 서법(書法)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숙종 계사년 윤5월 21일 태어났다. 어려서 총명하고 영특했다. 나이 열 서넛에 행서를 잘 써서 더러 얻어다 병풍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경신년(1740)에 어머니 상을 당했다. 탈상 후 안산군 치소에 터 잡아 살았는데 낮은 집 여덟아홉 칸이 초라했다. 절대로 생계에 관한 일을 묻지 않고 오로지 문장과 역사[文史], 붓과 베풀[筆硯]로써 스스로 즐겼다. 또 그림을 좋아하여 때로 붓을 놀렸는데 임리(淋漓)하고 고상하여 속기를 벗었다. 산수는 왕황학(王黃鶴:왕몽)과 황대치(黃大癡:황공망)의 법이 크게 있었고 묵란·묵죽은 더욱 맑고 굳세어 티끌이 없었다. 세상에 깊이 아는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도 잘하는 일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그저 감흥을 풀고 뜻에 맞게 이를 뿐이었다. 더러 얻으려는 사람이 놀리면 속으로 매우 싫고 괴로웠지만 또 엄하게 물리친 적 없이 건성이라도 응하여 남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글씨는 이왕(二王)을 본받고 미불(米芾)과 조맹부(趙孟頫)를 섞어서 자못 깊은 묘를 이루었고, 곁으로 전서·예서에 미쳐서 옛사람의 필의를 스스로 얻었다. 흥이 날 때마다 옛 법서를 서너 줄을 임서하여 한산하고 맑은 취미를 붙였다.²

자신은 어려서부터 글씨 재주가 있었고 1744년 겨울 안산읍 촌사에 복거한 뒤 문사와 필연만으로 자오했는데, 그림을 좋아해 산수는 원말 황학산초(黃鶴山樵) 왕몽(王蒙 1308~85)과 대치도인(大癡道人)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화법을 크게 따랐고 묵란·묵죽은 청경하고 탈속한 화풍을 이뤘다는 것이다. 또 글씨는 이왕 즉 동진 왕희지(王羲之 303~361)·왕헌지(王獻之 344~386) 부자의 고법을 본받고 북송 미불(1052~1107)과 원나라 조맹부(1254~1322)의 서풍을 참작했으며, 아울러 전서와 예서에도 관심을 두어 옛사람의 필의를 자득했다는 것이다. 짧은 내용이나 자신의 서화가 이뤄진 바탕을 자술한 보기 드문 기록이다.

² 『豹菴遺稿』(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pp. 463-472 부록 「豹翁自誌」(《靜春樓帖》所載), “翁生于肅廟癸巳閏五月二十一日, 幼聰穎, 年十三四, 能作行書, 或有求而作屏障者……庚申遭先妣喪, 服闋, 卜居安山郡治, 老屋八九楹蕭然也, 絕不問產業事, 唯以文史筆硯自娛, 又好繪事, 時或弄筆, 淋漓高雅, 脫去俗穢, 山水大有王黃鶴黃大癡法, 墨蘭竹尤清勁絕塵, 世無有深識者, 亦不自以為能事, 聊以遣興適意而已, 或為求者所嚮, 心甚厭苦, 亦未嘗峻却, 惟漫應之, 不欲拂人意, 書法二王, 雜以米趙, 頗造深妙, 旁及篆隸, 自得古意, 每興至, 臨古法書數行, 以寄其蕭散清遠之趣。”

이러한 내용은 강세황 사후 넷째아들 강빈이 지은 「선군행장 先君行狀」(약칭)에도 인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다른 사항이 더 적혀 있다.³

10살 때 문안공(姜覬)이 춘관(春官: 예조)의 수장으로 도화서 생도에게 시험을 치르는데 (부군이) 어른을 대신하여 그 차례와 우열을 매김에 조금의 어긋남도 없자 늙은 화사들이 밝은 감식에 탄복했다. 또 예조의 문서에 네 닷 글자를 대신 쓴 적이 있는데 판서 윤순(尹淳)은 그것이 10살 아이의 글씨임을 알고는 크게 칭찬하며 “반드시 한 시대의 이름을 떨치리라” 하였다.…… (나이) 열 두셋에 행서를 잘 써서 이를 얻어다 병풍을 만드는 사람이 많았다.⁴

글씨는 이왕을 본받고 미불과 조맹부를 섞어서 신묘한 변화를 이루었고, 곁으로 전서와 예서에 미쳐서 옛사람의 필의를 깊이 얻었다. 매번 사람의 요청을 받았는데 어떤 때 마음이 내키면 중국 종이와 비단 폭 수백 장에 해서·초서 각체를 썼으며, 혹 벽과대자(擘窠大字)⁵ 를 잠깐 사이에 남김없이 휘두르면 은갈고리인양 쇠뿔줄인양 용이 잡아당긴 듯 범이 움켜진 듯하였다.⁶…… 서화에 대한 평에서도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고 손 가는대로 쓰는데도 한 구절 한 마디가 청신하고 절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비록 몇 글자 몇 마디라도 간직하기를 영광으로 여겼다.……

대체로 필법에 있어 홀로 깨달은 묘리가 있었다. 평소 “우군(왕희지)의 올바른 맥은 당사가(唐四家)⁷에 있으니 시대가 가깝기 때문이다. 황정견(黃庭堅)·채양(蔡襄)은 당나라를 본받았고 문징명(文徵明)·축윤명(祝允明)은 송나라를 본받았으니 지금 사람은 명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중고에 한 두 서가가 옛 전서를 잘 썼다는 것은 망언이다. 오늘날의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뛰어올라 먼 옛날을 접할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난정서 蘭亭敘〉 정무본(定武本)은 당나라 모사본(摸賜本)보다 못하고 당나라 본은 송설(조맹부)의 〈십삼발본 十三跋本〉보다 못하다. 세상에 나도는 〈필진도 筆陣圖〉는 후대 사람의 위작으로 문자가 틀리고 자법이 속되어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이 많다” 하였다. 사람들이 근세 서가들의 정봉(正鋒)과 편봉(偏鋒)이란 말을 놓고 심하게 논쟁하는 일이 있자 부군은 웃으면서 “글씨가 곱고 거친 것이나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3 『豹菴遺稿』, pp. 475~516 부록 姜覬, 「先考正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府君行狀」. 이들 내용은 鄭元容(1783~1873)의 「漢城府判尹姜公世冕謚狀」(『經山集』 권19)에도 대부분 실림.

4 「先君行狀」, “在十歲, 文安公長春官, 書署生徒取才, 替長者等其次第優劣, 無絲髮爽, 老畫師眼明鑑, 又當代題古牒四五字, 尹判書淨知其爲十歲兒書, 大加稱賞曰, 必擅一代名云.…… 十二三, 能作行書, 人多求而作弄障者.”

5 벽과대자(擘窠大字): 사방이 꼭 차게 쓰는 대자. 주로 扁額에 쓰임.

6 은구철삭(銀鈎鐵索) 용라호획(龍掣虎攪): 글씨의 勁折한 필세를 형용한 말.

7 唐四家: 초당 사대가 歐陽詢(557~641), 虞世南(558~638), 褚遂良(596~658), 薛稷(649~713).

구름과 안개가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저 붓끝의 유희일 뿐이니 나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하였다. 부사 정지순(鄭持淳)은 글씨를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 부군 글씨에 대해 “같은 시대인 까닭에 쉽게 여기지만 후대 사람 중에 반드시 한 글자만 얻어도 함께 묻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으리라” 하였다. 지사 조윤형(曹允亨)은 “타고난 자품이 매우 높고 여러 장점을 녹여내어 따로 한 길을 열었으니, 천 권의 책을 읽은 기미를 볼 수 있다” 하였다.

그림은 오로지 왕황학(왕똥)과 황대치(황공망)를 본받았는데, 속기를 벗어나어 임리하고 고상했으며 번잡하거나 너저분한 모양을 하지 않았다. 또 묵란과 묵죽에 뛰어나 맑고 굳세며 티끌이 없었는데, 중국 작가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얻을 수 없었다. 더러 얻으려는 사람이 놀리면 매우 괴로워하고 싫어했지만 또 엄하게 물리친 적 없이 다만 건성이라도 응하여 남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종정(鐘鼎)에 새겨진 명문, 금석에 새겨진 그림, 이(彝)·대(敦) 등 고동기(古董器)까지 감상이 묘한 경지였다. 도장 새기는 법은 한위(漢魏) 사람의 적통을 얻었고, 문자학에 깊어 자획의 오류나 음운의 잘못도 반드시 세밀하게 가려냈다.⁸

갑진년(1784)에 도총관에 임명되었다.⁹ 이때 건릉제가 여든 살로 천수연(千壽宴)을 베풀었는데 부군이 부사로 연경으로 가서 연회에 참여했다. 건릉제는 사절단을 인견하고 함께 원명원(圓明園)에 나아가 놀고 관상했으며, 어제시 인쇄본을 내려주고 관례 이상으로 두터이 물품을 주어 우대하는 뜻을 보였다. 저들은 부군의 서화 명성을 익히 들었는데, 요동순무사(遼東巡撫使) 박명(朴明)은 “시는 무관(務觀: 陸游 1125~1210)을 마루로 삼고 글씨는 진나라 사람의 풍채와 골격(晉人風骨)이 있다” 하였고 일강관(翁方綱 1733~1818)과 유용(劉鏞 1719~1804) 등은 실로 문단의 빼어난 인물인데 (부군의) 글씨를 보고는 크게 경복하며 “타고난 뼈대가 펼쳐졌다[天骨開張]

⁸ 「先君行狀」, “書法二王, 雜以米趙, 造神化, 旁及篆隸, 深得古意. 每被人求索, 有時意到, 蠻牋絹幅累數百本, 書楷草各體, 或擘窠大字, 須臾之頃, 掃遍無餘, 銀鈎鐵索, 龍掣虎攫…… 書畫題評, 初不經意, 隨手而寫, 無一句一語, 不清警妙絕, 雖隻字片辭, 人以藏奔爲榮……”

蓋於筆訣, 有獨悟之妙. 常曰, ‘右軍正脈, 在於唐四家, 時之近也. 黃蔡而效唐, 文徵仲祝允明而效宋, 今人不得不御法皇明人, 吾東方中古一二家古篆之工, 妄耳, 在今之世, 安有超接邃古之理? 是故蘭亭定武本, 不及唐摸賜本, 唐本不及松雪十三跋本, 世所行筆陣圖, 後人贗作, 文字紕繆, 字法俗惡, 人之爲所誤者, 多矣.’ 人有以近世筆家正鋒偏鋒語, 苦口力爭, 府君笑曰, ‘妍媸巧拙, 視以雲烟起滅, 直是筆端遊戲耳, 餘不必較詰.’ 府使鄭持淳, 曉於書者, 嘗謂府君書曰, ‘同時故易之耳, 後人必有得隻字而願爲殉葬者.’ 曹知事允亨曰, ‘天品甚高, 鎔鑄衆美, 別作一徑, 有以見讀書千卷氣味.’

書法專仿王黃鶴黃大癡, 脫祛俗穢, 淋漓高雅, 不作繁縟澁忍態, 尤工於墨蘭竹, 清勁絕塵, 求之中華作者, 不易得. 或爲求者所矚, 甚苦厭, 亦未嘗峻却, 惟漫應之, 不欲拂人意. 鐘鼎款識, 金石刻畫, 至若古彝敦董器, 鑑賞入妙. 圖章鑄法, 得漢魏人嫡傳, 遂於字學, 字畫之差誤, 音韻之譌舛, 亦必毫釐縷析.”

⁹ 都總府 도총관 임명은 『승정원일기』 정조8년(1784)5월8일, “兵批, 判書徐有隣進, 參判洪良浩, 參議李文源病, 參知洪仁浩未肅拜, 右副承旨黃昇源進, 以姜世晃爲都總管……”

하였다.¹⁰

위 행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왕희지의 올바른 맥이 당나라 사대가에 있으니 시대가 가깝기 때문이다. 황정견(1045~1105)·채양(1012~67)은 당나라를 본받았고 문징명(1470~1559)·축윤명(1460~1527)은 송나라를 본받았으니 지금 사람은 명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다. 즉 글씨는 가까운 시대부터 배워 고대의 이상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역대 서예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자신이 초하에 왕희지·왕헌지로 대표되는 고법을 배우다가 이를 좀 더 알기 위해 가까운 명대 글씨를 두루 배웠고 다시 올라가 원대 조맹부의 글씨를 배웠으며 또 다시 올라가 북송 미불의 글씨를 배웠던 과정을 가리키는 듯하다. 특히 미불과 조맹부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서화가로 각각 이왕(二王) 고법의 적통을 계승하고 진당(晉唐) 서풍의 정수를 터득한 점에서 그들의 글씨는 강세황에게 고전 서풍에 다가서는 주요한 징검다리로서 여겨졌을 것이다.

II. 표암 서풍의 기반: “書法二王 雜以米趙”

앞서 본 것처럼 강세황은 왕희지·왕헌지 글씨를 본받고 미불·조맹부 글씨를 섞어 자못 깊은 묘를 이루었다고 자술했다. 그렇다면 강세황은 이들 서풍을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의 글씨를 이루어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진 이왕의 고법, 북송 미불의 서풍, 원 조맹부의 서풍, 명대 제가의 서풍 순으로 강세황 서풍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겠다.

1. 東晉 二王의 고법

역대의 명필들처럼 강세황 역시 이왕의 고법을 마루로 삼았다. 그가 초년에 배웠던 것이나 중년에 새로 수용한 후대 서풍도 대부분 동진 왕희지·왕헌지로 대표되는 고전 서풍에서 나왔다. 강세황의 시문집 『표암유고 豹菴遺稿』 권5에는 중국의 역대 법서(法書)에 대한 여러 편의 제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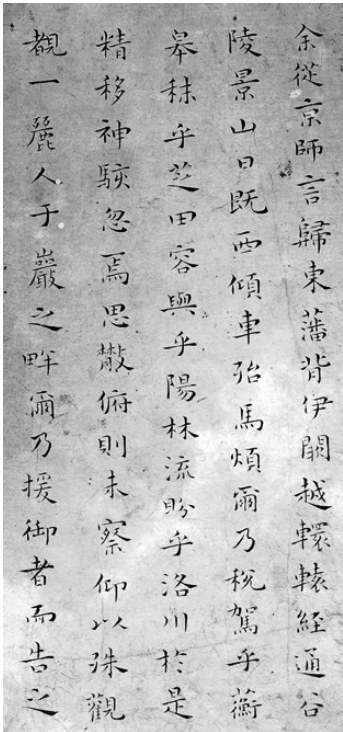
¹⁰ 「先君行狀」, “甲辰拜都總管. 時乾隆帝以大耄, 設千壽宴, 府君充副价, 赴燕與宴. 乾隆引對, 共詣圓明園游賞, 賜御製詩印本, 厚賚超例, 示其優待. 彼人慣閱書畫名, 遼東巡撫博明曰, 詩宗務觀, 書有晉人風骨, 日講官翁方綱劉鏞輩, 實詞垣翹楚, 見書法大敬服曰, 天骨開張.”

실려 있다.¹¹

이왕의 법서로는 왕희지의 소자해서[小楷] 〈황정경 黃庭經〉·〈조아비 曹娥碑〉·〈희지필진도 羲之筆陣圖〉와 왕헌지 소해 〈낙신부 洛神賦〉에 대한 발문이 있다. 그중 강세황이 1777년(65세) 5월에 서울 남산 아래 회현방의 무한경루(無限景樓)에서 〈황정경〉과 〈조아비〉에 대해 지은 발문을 보면¹² 1701년에 부친 좌참찬 강현이 인현왕후(仁顯王后)의 국상을 알리는 고부사(告訃使)로 연경에 가서 그곳의 문사 축개(祝愷)로부터 거위 몇 마리와 바꾼 것이라면서 자신의 집안

에 오래 전해졌다고 한다. 또 〈희지필진도〉에 대해서는 “세상에 나도는 〈필진도〉는 후대 사람의 위작으로 문자가 틀리고 자법이 속되어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이 많다” 하면서 올바른 법서의 선택을 지적하였다. 또 〈낙신부〉에 대한 발문은 1788년 5월에 연성(蓮城: 안산의 옛 이름)의 김 선비가 소장한 〈낙신부〉 13행을 빌려 조맹부의 고사에 따라 임서했는데 몇 행을 쓰지 못한 채 김 선비의 독촉에 돌려주고는 안타까워하면서 언젠가 이 법서를 얻어 다시 임서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이처럼 강세황은 초년부터 이왕 소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왕 소해를 임서한 그의 필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나라 조식(曹植 192~232)이 지은 「낙신부」 전문을 소해로 쓴 필적이 전하는데(도 1), 연대는 없지만 1744년(32세) 이후 안산시절 초기의 필적으로 여겨지는 《참채첩 忝齋帖》에 실려 전한다.¹³ 이 강세황의 〈낙신부〉는 13행만 전하는 왕헌지의 〈낙신부〉(도 2)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이 보다는 글자 틀이 더 납작하고 기울기가 더 평온한 왕희지



도1 강세황, 〈洛神賦〉 부분, 《忝齋帖》 28.8×16.2cm,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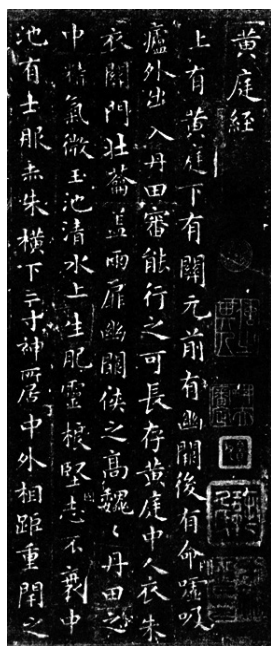
11 古代 글씨로 『題嶧山碑』, 二王 小楷로 『題臨書洛神賦下』, 『黃庭外經跋』, 『題筆陣圖後』, 『題曹娥黃庭帖後』, 왕희지 행서로 『題新刻蘭亭序印本後』, 『自書蘭亭序入刻仍題其下』, 당송원대 필적으로 『題懷素帖』, 『題手摹李陽水城隍碑後』, 『又題』, 『臨書蔡襄荔枝譜仍題其下』, 『又書』, 『題米元章蕭閑堂記印本後』, 『題臨米蘋風帖後』, 『題成氏家舊藏松雪書障子』, 중국 法帖으로 『書快雪堂帖』이 실려 있음.

12 이 발문의 진적은 『豹菴 姜世晃』 한국서예사특별전 23(예술의전당, 2003), p. 262 참조.

13 안산시절은 1744년(32세) 10월부터 1773년(61세) 윤3월 14일 英陵參奉이 되어 상경한 때까지. 강세황은 1737년(25세)부터 山響齋란 당호와 道菴·宜山子란 호를 썼고, 1744년(32세) 안산 이주 후 忝齋를 많이 썼으며 樸菴·壘菴·海山亭·我法齋 등도 썼다. 40대 이후 주로 豹菴이라 했고 『豹翁自誌』를 지은 1766년(54세)부터 豹翁도 썼으며 無限景樓·露竹齋·端研齋란 당호를 썼다. 특히 1783년(71세) 耆老所에 들어간 뒤에는 대부분 표용 또는 豹老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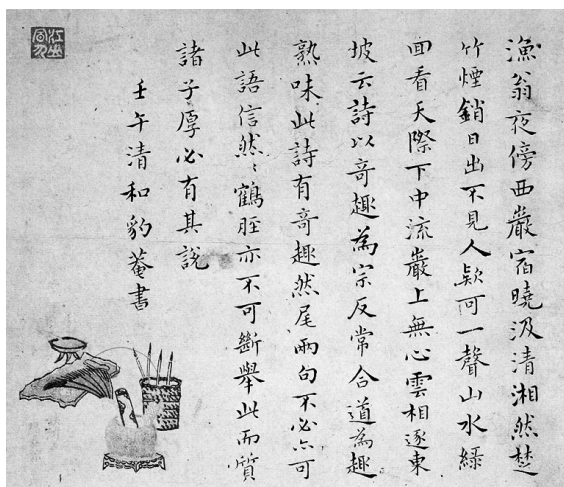
도2 王獻之,〈洛神賦〉앞부분, 搨本, 北京 文物商店.



도3 王羲之,〈黃庭經〉앞부분, 搨本, 東京 五島美術館.

의 <황정경>(도 3)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또 강세황의 노년 소해로 1762년(50세) 4월에 당나라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어옹 漁翁」이란 칠언시와 이에 대한 소식(蘇軾 1037~1101)의 글을 인용한 그의 시평(詩評) 필적도 전한다(도 4). 간간이 납작한 자형의 왕희지 소해풍도 있지만 글자들이 좀 더 길고 늘씬한 왕헌지 소해풍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이처럼 강세황은 이왕소해를 수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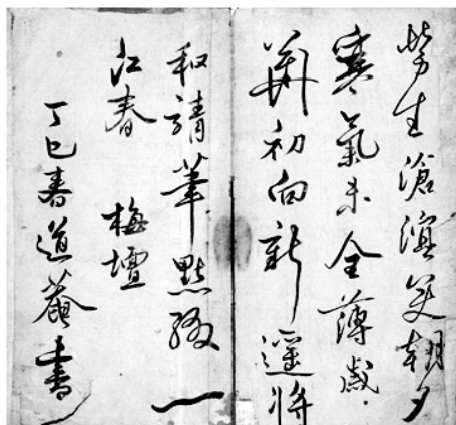
다음 행서에 있어 강세황은 왕희지의 <난정서 蘭亭敍>에 관한 두 편의 제발을 남겼다. 이들 발문에서 그는 우리나라 <난정서>가 모각기술이 낮고 거칠어 원래의 모습을 와전시켰고 결국 후학을 마도(魔道)로 이끌게 되었다고 개탄하면서 손수 <난정서>를 모사하여 새기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¹⁴ 또 전술했듯이 「선군행장」에서 “우군이 올바른 맥은 당사파(唐四家)에 있으니 시대가 가깝기 때문이다. 황정견·채양은 당나라를 배웠고 문징명·축윤명은 송나라를 배웠으니 지금 사람은 명나라 사람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난정서> 정무본은 당나라 모사본보다 못하고 당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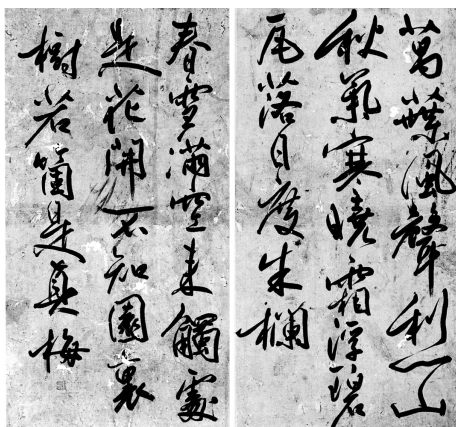
도4 강세황,〈評柳宗元詩漁翁〉, 1762년, 18.9×21.6cm, 《當世諸家帖》, 개인.

14 『표암유고』 권5, 「題新刻蘭亭序印本後」, “…至吾東, 而摸手拙刻工粗, 無怪其以訛傳訛, 不足深論, 最是鑑識無人, 取捨乖謬… 余從古本手摸以刻, 見者必驚播却走, 余不必相較, 只冀傳之於後, 或有一人覺悟, 是所深望.”; 「自書蘭亭一本入刻仍題其下, “東俗蘭亭, 如枯柴死蚓, 學者眯眼, 白首屹屹, 竟墮魔道, 重刻古本, 雖不敢謂毫髮無憾, 差亦近真, 盲俗荆見, 必驚搔不信, 然傳之久遠, 庶或有慧人心眼頓悟.”

본은 조맹부의 〈13발본〉보다 못하다”는 특이한 설을 내기도 했다.¹⁵ 이 설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난정서〉에 대한 강세황의 관심은 대변된다. 〈난정서〉의 전형을 따른 필적도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가 초학 단계에서 왕희지 등의 고법 행서를 배웠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도5 강세황, 〈행서 五言詩〉부분, 1737년, 24.9×27.6 cm, 《國朝書法》 권10,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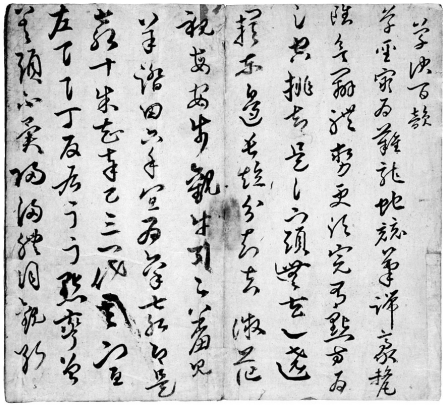
도6 이광사, 〈행서 杜甫詩〉, 각72×38cm, 개인.

강세황의 기년작 행서로 가장 이른 1737년(25세) 봄의 〈행서 오언시〉가 《국조서법 國朝書法》 권10에 전한다(도 5). 《국조서법》은 명나라 1561~85년 간행된 전16권의 법첩이다. 강세황의 수택본(手澤本)으로 권6, 8, 10이 전하는데, 그 뒷면에 여러 임서와 습자 및 그림이 실려 있다. 이 〈행서 오언시〉는 ‘도암(道菴)’이라 낙관한 보기 드문 예로 아직 글씨 수준은 낮지만 기본적인 자형은 왕희지 행서에서 나왔다. 다만 변형된 짜임, 과장된 필획, 심하게 굴곡진 ‘一’자 등에서 당시 필명이 낫던 원교(圓橋) 이광사(李匡師 1705~77)의 글씨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있어 강세황이 초년에는 선배의 서풍을 따랐음을 보여준다(도 6).

다음 초서에 있어 왕희지 계열의 〈초결백운가 草訣百韻歌〉를 쓴 필적이 《국조서법》 권10에 전한다(도 7). 〈초결백운가〉는 초서를 배우기 위해 오언구 100운(韻) 500자(字)로 만든 법서로 흔히 왕희지가 지었다고 전하나 신빙성은 전혀 없으며, 글씨 또한 왕희지 등의 고법 초서를 본떠 만든 것이다. 강세황의 임서는 운필이나 획법에서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상술한 1737년

¹⁵ 〈난정서〉는 會稽內使 왕희지가 353년 3월 초 친우 41명을 山陰 蘭亭에 초대, 曲水에서 불계(祓禊: 不淨을 떨어내는 도교 의식)를 치른 뒤의 詩會 서문. 진적은 唐太宗이 道士 辨才에게 입수하여 간직하다 昭陵에 부장되었다 함. 현재 歐陽詢·虞世南·褚遂良 등의 臨本과 趙模·馮承素 등의 摹本 및 이에 근거한 宋代 이후 석각본 전함. 모본으로 神龍半印本 유명. 각본으로 북송 때 河北省 眞定縣 定武에서 발견된 定武本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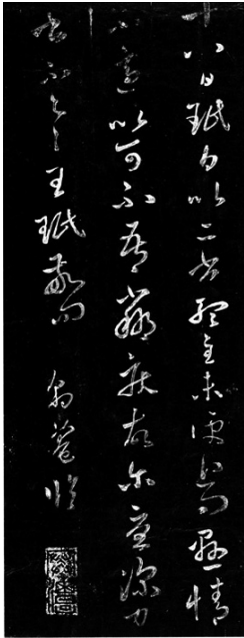
〈十三跋本〉은 조맹부가 1310년 元太祖의 부름을 받아 고향 吳興에서 大都로 가는 舟中에서 〈定武本蘭亭序〉에 대해 13차례 발문을 남기고 그 전문을 임서한 것. 『海を渡った中國の書』 エリオット・コルクソンと宋元の名蹟(大阪市立美術館, 2003), pp. 212-2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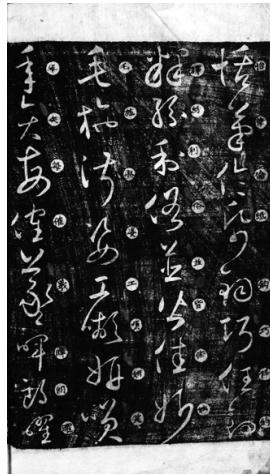
도7 강세황, 〈草訣百韻歌 임서〉, 24.9×27.6cm, 《國朝書法》 권10, 개인.

(25세) 기년작 행서와 함께 실려 있는 점에서 그 필사시기가 짐작된다. 또 강세황이 1759년(47세) 여름에 왕희지의 척독(尺牘:간찰) 여러 통을 모각한 《십칠첩 十七帖》을 임서하고 짧은 발문을 남기도 했다. 발문에서 “서법의 묘는 마음으로 터득하여 손으로 응하는 것[得心應手]에 달려 있다. 법첩을 널리 살펴보지 않으면 역시 극치를 이루기 어렵다. 이왕을 버리면 결국 바르지 않은 길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¹⁶ 강세황은 이왕의 고법을 매우 중시하고 법첩을 통해 왕희지·왕헌지 글씨를 익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강세황이 왕헌지와 동시대 사람으로 왕헌지 서풍을 따랐던 동진 왕민(王珉)의 척독을 임서한 것도 전한다(도 8). 이 필적이 실린 서첩의 다른 필적이 적어도 50대 이후의 서풍을 보인다는 점에서 강세황이 노년에도 고법을 지속적으로 익혔음을 보여준다.¹⁷



도8 강세황, 〈王珉尺牘 임서〉, 黑紙黃粉, 세로 32.7cm, 帖粧,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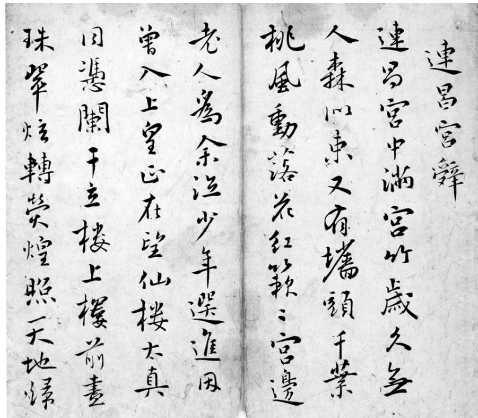


도9 엄한봉, 〈草千字〉, 1789년 姜世晃跋, 목판본 30.2×19cm, 예술의전당.

한편 강세황은 1789년(77세) 8월에 전대의 초서 명필이던 만향재(晩香齋) 엄한봉(嚴漢朋 1685~1759)의 《초천자 草千字》(도 9)에 대한 발문을 남겼다. 엄한봉의 아들 엄계응(嚴啓膺 1737~1816)의 부탁으로 지은 것인데 엄한봉의 《초천자》 목판본 뒤에 함께 새겨져 있다. 발문에서 강세황은 어려서부터 엄한봉의 글

¹⁶ “書法之妙, 在得心應手, 不博觀法帖, 亦難造極. 捨二王, 終是外道. 己卯夏豹菴. [光之]”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研究』(一志社, 1988), p. 303, 도 83 참조.

¹⁷ 『豹菴姜世晃』(예술의전당, 2003), pp. 48-49 참조.



도10 강세황, <雜體 連昌宮辭>부분, 28.8×32.4cm, <<豹菴帖>>, 개인.

씨에 심취했다고 하면서 “참으로 이왕의 묘처를 얻었으니 근래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높이 상찬했다.¹⁸ 이로 보면 강세황은 이왕 서풍에 바탕을 둔 엄한봉의 초서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강세황은 <자서첩 自綴帖>·<장진첩 藏眞帖>·<율공첩 律公帖>·<초천 草千字> 등 당나라 회소(懷素 8세기)의 필적을 보고 필법이 매우 기(奇)한데 그중 <장진첩>·<율공첩>이 더욱 뛰어나고 신묘한 필세가 있어 이왕의 가짜에 비할 바가 아니라면서 즐겨 임서했다고 하였다.¹⁹

그러나 강세황의 초서에는 회소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후술할 명나라 축운명 등의 방일(放逸)한 초서를 수용함에 있어 이러한 임서가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이 강세황이 서예의 근간으로 삼았던 이왕의 고법은 왕희지의 <황정경>·<조아비>, 왕헌지의 <낙신부> 등의 소해와 <난정서>, <<십칠첩>> 등의 왕희지 행초였다. 이들 법서는 이왕 서풍을 따르는 서가들이 보편적으로 학습하던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고법 추종자들이 흔히 구사하던 필사 방식으로 해서와 행초를 섞어 쓴 예가 종종 보이는데, 강세황이 중년에 당나라 원진(元稹 779~831)의 「연창궁사 連昌宮辭」를 쓴 필적도 그러한 예이다(도 10).

2. 北宋米芾의 서풍

강세황의 행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북송 미불(1052~1107)의 서풍이다. 미불은 서화가로도 이름이 났지만 송나라 최고의 서화감식가·이론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개성을 지향했던 북송시대 문인서화론 속에서도 이왕 고법을 중시했고 특히 왕헌지의 서풍을 애호했다.²⁰ 그의 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으나 행초에서는 이왕에 바탕을 두면서도 고전 서풍의 투식화된 전형을 탈피하여 자신만의 개성적 서풍을 이루었다. 특히 긴 획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게 하는

¹⁸ “余自幼少時，見晚香齋書法，未嘗不心醉，但限年歲差池，未能上下高論。乃者，其胤君出示新刊草千字一卷，眞得二王妙處，非我東近代所得。披覽之餘，題此一語於後。己酉秋八月豹翁書。[豹老][光之]” 『豹菴姜世晃』(2003), pp. 248-249 참조.

¹⁹ 『표암유고』 권5, 「題懷素帖」, “世傳懷素書，有自鉞·藏眞·律公等帖，筆法甚奇。又有草書千文，其中藏眞·律公帖尤勝，有神妙之勢，非二王贗本之比也。余每喜臨之。”

²⁰ Lothar Ledderose, 「米芾與王獻之」, 『故宮季刊』7, no.2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2), pp. 71-84.

편측(偏側/欹斜)을 사용하고 삐침을 급하게 내리거나 끝을 눌러 글자의 형세를 변화시키는 등 독특한 필법을 구사했다.²¹ 그의 서풍은 북송 말을 거쳐 남송 때 널리 유행되었고 원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명대 후기에 동기창(董其昌 1555~1636)에 의해 부활되었다. 아마 이러한 점이 강세황에게 호감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미불 서풍은 강세황 바로 앞 세대의 명필인 백하(白下) 윤순(尹淳 1680~1741)에 의해 선도되었고 그 뒤 이광사·강세황·조운형(曹允亨 1725~99)·신위(申緯 1769~1845)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윤순은 왕희지를 이상으로 하면서도 당·송·원·명의 역대 서풍을 널리 수용했는데, 특히 행초에서 미불 서풍을 깊이 터득하고 뒤에 명대 동기창의 서풍도 수용하여 서예계를 일신시켰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 이광사는 변화로운 짜임과 강렬한 운필을 구사하여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이광사의 제자 조운형은 이를 또 다르게 변모시키는 등 윤순 내지 미불에 바탕을 둔 글씨가 18세기 행초 서풍의 주류를 이루었다.²²

『표암유고』에는 미불의 <소한당기 蕭閑堂記> 인본에 대한 발문과 <빈풍첩 蘋風帖>을 임서하고 적은 발문이 실려 있다.²³ 또 판관 쌍천옹(雙川翁) 손석휘(孫錫輝)가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명적을 베껴 쓴 임고첩(臨古帖) 4권에 대한 제발 35편도 실려 있는데, 그중 중국 명적 임서에 관한 19편 가운데 미불이 8편이나 되는 것도 미불에 대한 강세황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²⁴ 여기에는 미불의 대자 행서로 유명한 <천마부 天馬賦>를 비롯하여 여러 척독 필적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강세황이 접했던 미불 법서의 범위도 알려준다. 또한 미불 이외에 송사가(宋四家)인 소식·황정건·채양의 필적에 대한 제발도 실려 있는데, 그중 채양의 <여지보 荔枝譜>를 임서한 뒤 적은 발문에서 강세황은 우리나라에 미불 글씨가 전파된 상황과 서풍적 특징을 이렇게 평하였다.

송나라에서 글씨로 이름난 이로 사대가(四大家)가 있으니 소식·황정건·미불·채양이다. 우리 동쪽에 와서 소식·황정건은 오직 문장으로만 칭송되며 글씨의 명가임을 거의 모른다. 미불의

²¹ 미불 서예는 Lothar Ledderose, *Mi Fu and the Classical Tradition of Chinese Calligrap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eter C. Sturman, *Mi Fu: Style and the Art of Calligraphy in Northern Song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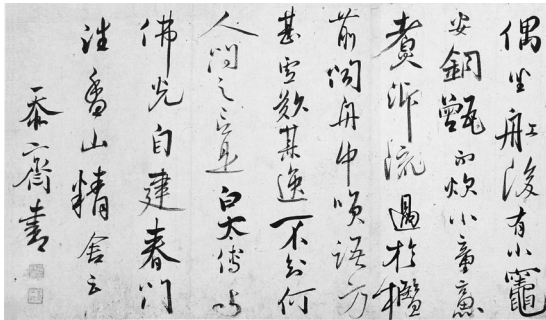
²² 李完雨, 「白下 尹淳과 中國書法」, 『美術史學研究』 206 (韓國美術史學會, 1995, 6), pp. 29-66; 李完雨, 「眞嶠 李匡師의 書藝」, 『美術史學研究』 190-191 (1991, 9), pp. 69-124; 鄭明兒, 「豹菴 姜世晃 書藝 研究」, 동국대 석사논문(1998); 金智娜, 「松下 曹允亨 書藝 研究」, 대전대 석사논문(2007); 徐承禮, 「朝鮮後期 米芾·董其昌 書藝의 수용에 관한 研究」, 대전대 석사논문(2004); 이완우, 「조선 후반기 宋明代 서예의 유행」,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도서출판 藝耕, 2007), pp. 331-377 참조.

²³ 『표암유고』 권5, 「題米元章蕭閑堂記印本後」, 「題臨米蘋風帖後」.

²⁴ 『표암유고』 권5, 「題批雙川翁臨帖」, 「倣米南宮天馬賦帖」, 「倣米南宮人皆趨世帖」, 「倣米南宮圓其日帖」, 「倣米南宮北池雲水帖」, 「倣米南宮羅衫帖」, 「倣米南宮山清氣爽帖」, 「倣米南宮兜率帖」, 「倣獻之及米南宮簡帖」.

이름은 근래 비로소 크게 드러났는데 백여 년 전만 해도 미불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근래 한 두 사람 글씨로 자부하는 사람이 더러 ‘미체(米體)’라고 자칭하는데, 동쪽사람이 미불을 아는 것은 대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미불 첩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대다수 중국에서 사온 것이다. 미불 글씨는 대체로 미쳐 날뛰는 듯[狂怪跳踉] 기울고 쓸리며 쓰러지고 엎어져[欹斜偃仆] 보통 사람의 눈을 쉽게 놀라게 하니, 시장거리의 어린 아이까지도 모두 ‘미체’라고 칭한다...²⁵

위의 “한 두 사람”에 윤순이 포함될 것이며 그로부터 미불 글씨가 널리 전파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또 “미쳐 날뛰는 듯 기울고 쓸리며 쓰러지고 엎어져”라고 미불 글씨의 특징도 잘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강세황의 미불 서풍 수용은 아무래도 그것을 선도한 윤순에게서 비롯된 듯하다. 이를 대변해주는 예로 강세황이 당나라 백거이(白居易 772~846)와 산승 불광(佛光)의 고사를 쓴



도 11 강세황, 〈행서 語林句〉 뒷부분, 31.5×144.2cm 額粧, 경기 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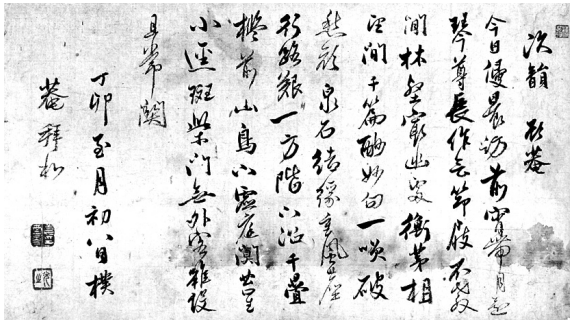


도 12 윤순, 〈행서 詩傳句〉 부분, 絹本 각 34.5×22.3cm, 帖粧,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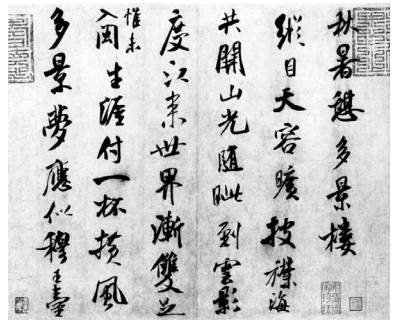
〈행서 어림구(語林句)〉(도 11)가 있다.²⁶ 안산 이주 후 30대 필적으로 짐작되는데, 짜임이 좀 느슨하고 빠침과 파임이 길며 유연한 운필로 글씨 줄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 점에서 윤순 서풍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도 12). 또 1747년(35세) 11월에 고암의 오언시운을 따라 쓴 〈행서 차운고암(次韻顧菴)〉(도 13)을 보면, 글자가 왼쪽으로 쓸리고 가로 획의 기필(起筆)을 강하게 누르는 등 미불 글씨의 특징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도 14). 또한 1749년(37세) 8월에 동기창(字 玄宰)과 심주(沈周 1427~1509)의 산수도를 방하여 그린 뒤 각각에 발문을 남겼는데, 특히 〈방동현재산수도(仿董玄宰山水圖) 발문〉(도 15)을 보면 미불 서풍에 바탕을 두면서도 지형을

²⁵ 『표암유고』 권5, 『臨書蔡襄荔枝譜 仍題其下』, “宋之以書名者, 有四大家焉, 蘇黃米蔡也. 至於吾東, 蘇黃惟以文章稱, 殆不知爲墨池名家, 米之名, 近始大著, 百餘年前, 未有知米者, 此何故也. 近來一二人, 以書自許者, 或自稱米體, 東人之知米, 蓋自此始. 米貼之傳世者, 多自中華買至. 米書大抵狂怪跳踉, 欹斜偃仆, 易驚凡夫之眼, 至若市井小兒, 亦皆稱米體...”

²⁶ 백거이의 글은 明何良俊, 『語林』 권20, 『棲逸』 第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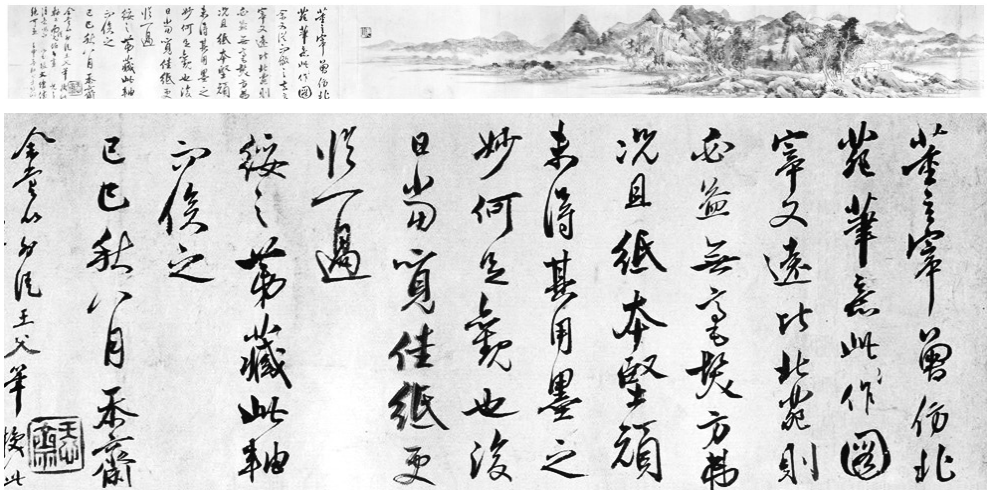
도13 강세황, <행서 하권관첩>, 1747년, 26.5×47cm, 學古齋.



도14 미묘, <행서 秋暑憩多景樓詩帖>, 27.6×34.3cm, 北京 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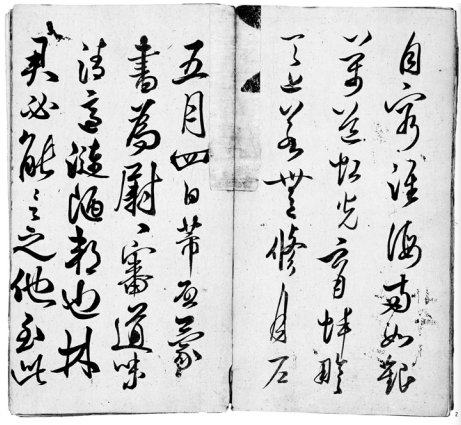
수려하게 하는 등 자신만의 필치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안산시절에 본격화된 미불 서풍은 30대 후반에 이르러 강세황의 글씨 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더불어 미불 글씨의 학습도 지속된 듯한데, 이를 보여주는 예로 1754년경에 미불의 칠언절구 자작시 <중추등해대루작 中秋登海岱樓作>을 임서한 초서와 미불의 척독 <덕침첩 德忱帖>을 임서한 행초가 <<국조서법>> 권8에 전한다(도 16). 바로 앞쪽에 실린 행서 칠언절구 2수의 말미에 “甲戌十月二十八日 且閒” 즉 1754년(42세)이란 기년이 있어 그 필사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미불의 <덕침첩>과 <중추등해대루작>(中秋詩帖)은 명나라 문징명이 1537년에 찬집하여 1560년에 모각된 <<정운관법첩 停雲館法帖>> 권5 송명인서(宋名人書)에 실려 있으며²⁷ 그 진적도 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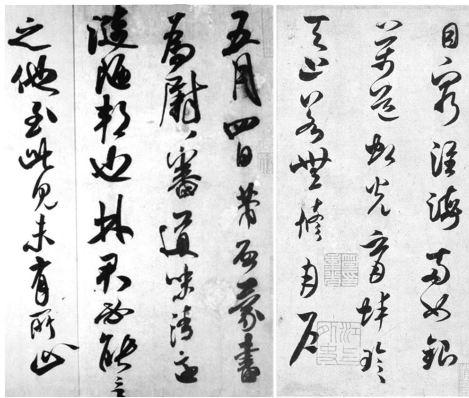


도15 강세황, <仿董玄宰山水圖와 발문>, 1749년, 지본수묵 23×231cm 卷紙, 국립중앙박물관.

27 容庚編, 『叢帖目』(香港: 中華書局, 1980), pp. 223-224 참조.



도 16 강세황, 〈德忱帖·中秋登海岱樓作〉, 24.9×27.6cm, 《國朝書法》 권8, 개인.



도 17 米芾, 〈德忱帖〉,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中秋登海岱樓作〉, 大阪市立美術館.

도 한다. 그러나 그의 노년 내지 말년 행초의 주된 바탕은 역시 미불 서풍이었다. 그가 1783년(71세) 5월에 미불의 〈빈풍첩〉을 임서한 필적은 노년에도 미불 글씨를 지속적으로 애호했음을 보여준다. 임서 후 적은 발문에서 이 첩이 〈천마부〉·〈다경루시첩 多景樓詩帖〉과 다른 필치를 지녔다고

고 있어 강세황의 임서와 잘 비교된다(도 17).

이후 40대 중반 쯤부터 강세황은 성숙한 필력을 구사했다. 대표적인 예로 1757년(45세) 7월에 오수채(吳遂采)의 제의로 송도를 여행하고 남긴 《송도기행첩 松都紀行帖》의 화제(畫題)와 말미에 음취현(搢翠軒) 박은(朴問 1479~1504)의 칠언장시를 쓴 행서를 비롯하여 1758년에 사망한 과옹을 위해 그린 《과옹 십취도 瓜翁十趣圖》의 칠언절구 10수 글씨, 1761년(49세)의 《표현연화첩 豹玄聯畫帖》 발문 등 여러 필적에 나타나 있어 이때를 즈음하여 미불 서풍이 강세황 글씨의 전형으로 안착되었음을 보여준다.²⁸ 또 미불의 대자 서풍을 따른 예로 1747년(35세)의 〈현정승집도 玄亭勝集圖〉 제서(題書)를 비롯하여 1768년(56세) 봄에 연성(蓮城)의 시안재(是安齋)에서 사언구로 쓴 〈고침간운 高枕看雲〉(도 18) 등이 전하는데, 모두 변화로운 짜임과 거친 운필에서 〈홍현시권 虹縣詩卷〉(도 19) 등 미불의 대자 행서와 상통하는 면모를 보인다.

강세황이 미불 외에도 조맹부나 축윤명 등의 글씨도 두루 수용했기 때문인지 그의 중년 필적에는 이들 서풍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²⁸ 이들 필적은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研究』(1988); 『豹菴 姜世晃』 한국서예사특별전 23(예술의전당, 2003); 『豹菴 姜世晃』 탄신 30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국립중앙박물관, 2013) 참조.



도 18 강세황, 〈행서 高枕看雲〉, 1768년, 43×185cm,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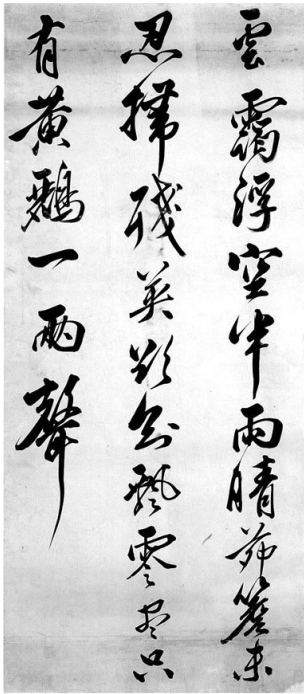
도 19 미계, 〈虹縣詩卷〉 부분, 1106년, 31.2×487cm 卷粧, 東京國立博物館.

한 것을 보면, 강세황은 이들 필적을 통해 미불의 다양한 서풍을 수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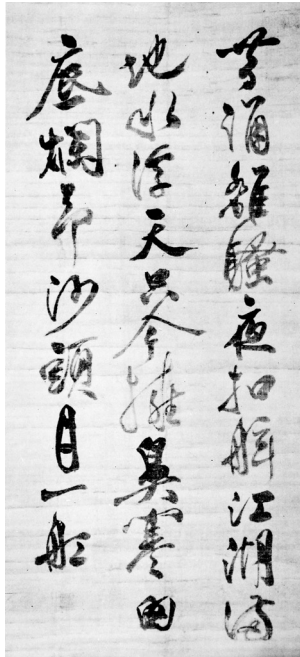
우리에게 익숙한 강세황의 노년 행초는 원래의 미불 글씨와도 다르고 미불 서풍을 구사했던 백하 윤순이나 원교 이광사 등의 선배 글씨와도 다른 강세황만의 특유한 필적을 보인다. 이러한 서풍을 ‘표암체(豹菴體)’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면모를 적시해주는 예로 1783년(71세) 이후에 송나라 학자 양시(楊時 1053~1135)·장식(張栻 1133~80)·정호(程顥 1032~85) 등의 칠언절구를 행초로 쓴 여덟 폭이 전한다(도 20).³⁰ 이를 윤순이나 이광사의 대자 행초와 비교해보면(도 21, 22), 모두 미불 서풍에 바탕을 두었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이 드러난다. 강세황의 경우 획 굵기에 좀 더 차이를 주고 예리한 붓끝을 잘 살렸으며 글자의 형세를 안정적으로 처리한 점이 돋보인다. 그런데 강세황의 마지막 기년작으로 사망하기 전해인 1790년 겨울에 우리나라 남쪽 고을에서 나는 죽청지(竹淸紙)에 당나라 양거원(楊巨源 755~?) 등의 오언구를 쓴 행서를 보면 ‘표암체’라 하기에 망설여질 정도이다(도 23). 획법은 물론이요 짜임과 운필에 이르기까지 공교롭게도 윤순이 사망하기

²⁹ 鄭明兒, 『豹菴 姜世晃 書藝 研究』(1998), p. 102, 도판 69 참조. 발문은 “蘋風帖, 世傳爲米南宮書, 作字縱浪, 多不入俗眼, 與天馬賦多景樓詩帖有異, 未可辨其孰眞孰贗, 殆若小說所謂假孫悟空. 若無神眼, 誰能袂臆明覈也. 乙巳五月, 豹翁臨.” 『표암유고』 권5 『題臨米蘋風帖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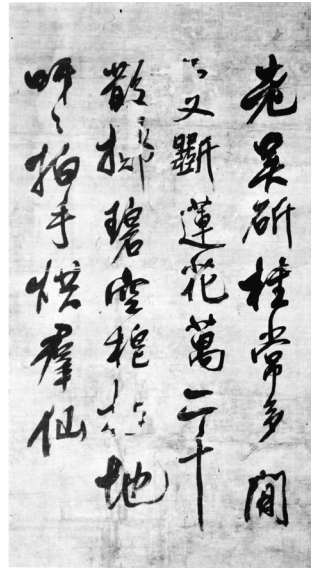
³⁰ 각폭 말미에 적힌 [三世耆英]은 1783년(71세)耆老所에 들어간 뒤부터 사용한 인장으로 조부 文貞公 姜栢年과 부친 文安公 姜靚 및 자신의 삼대가 入社했다는 뜻. 『豹菴 姜世晃』(예술의 전당, 2003), pp. 90-91 참조.



도 20 강세황, <행초 七言絶句> 110 × 49cm, 8폭병 제8폭,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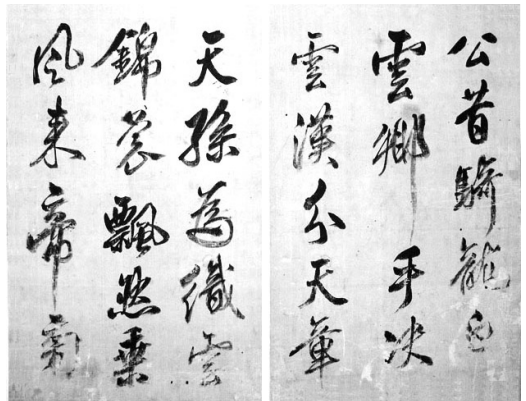
도 21 강세황, <행초 朱熹詩>, 絹本 124.7 × 54.8cm 軸粧, 국립중앙박물관.



도 22 이광사, <행서 朴世堂詩>, 147.7 × 79.4cm 軸粧, 국립중앙박물관.



도 23 강세황, <행서 五言詩> 부분, 1790년, 각 54.7 × 31.5cm, 《豹菴遺彩》보물 1680호, 경기도박물관.



도 24 윤순, <행초 七言詩> 부분, 1740년, 絹本 각 29.3 × 19.5cm, 《白下眞蹟》帖, 수원박물관.

전해인 1740년 5월에 쓴 필적과 흡사하기 때문이다(도 24). 필시 백하와 표암이 지향했던 서예적 이상이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3. 元 趙孟頫의 서풍

송설도인(松雪道人) 조맹부(1254~1322)는 한족 출신의 문인서화가로 몽고족 치하에서 역대 서화의 계승에 힘썼던 인물로 '왕희지의 적류(嫡流)'로 일컬어졌다. 특히 그는 송나라 이래 왕희지 고법이 황폐화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진당(晉唐) 서예를 통해 고법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그는 전아(典雅)한 풍격의 왕희지 고법에 바탕을 두면서도 명료한 점획과 기법적인 운필로써 미려하고 정제로운 글씨를 이루어냈다.³¹ 이러한 송설체는 왕실·문사들 사이에서 애호되어 원대는 물론 이요 명대에도 유행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4세기 고려 후기에 전해져 이후 조선에 들어가 문종(1414~52)·성종(1457~94) 및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53) 등의 왕실이 이를 구사하면서 후대 서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³²

『표암유고』 권5에는 조맹부 서화에 대한 애호심을 보여주는 몇몇 제발이 실려 있다. 그중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의 후손 덕에 전하는 조맹부의 28자 묵적을 보고 쓴 발문과 조맹부의 특의작 <완화첩 浣花帖>을 방(仿)한 쌍천옹 손석휘의 글씨를 평한 글이 실려 있다. 또 1756년(44세) 6월에는 이를 주제로 하여 <완화초당도 浣花草堂圖>를 그리고 긴 발문을 써서 아들 길(吉: 강완의 초명)에게 주기도 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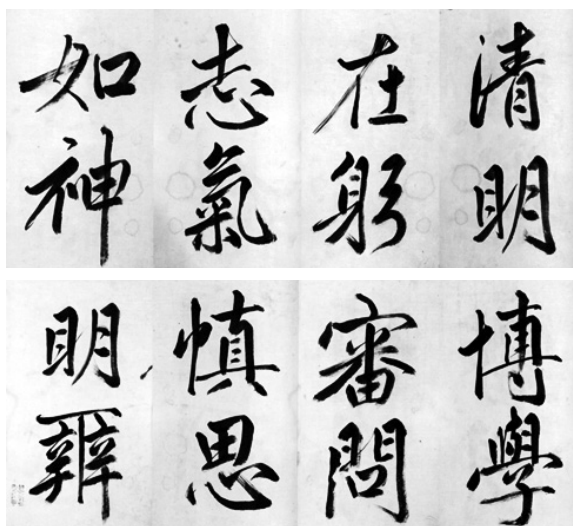
강세황이 송설체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이른 시기의 예로 32세 때인 1744년 10월에 대자와 중자로 쓴 <첨재만필 忝齋漫筆>이 전한다. 내용은 『예기 禮記』 등에 실린 공자(孔子)의 어구와 소옹(邵雍 1011~77)·양시(楊時)·정이(程頤 1033~1107)·장재(張載 1020~78) 등 송나라 학자들의 명구(銘句)이다. 그중 공자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덕을 찬미한 '청명 재궁(清明在躬) 지기여신(志氣如神)'과 선비의 일상자세를 말한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慎思)·명변(明辯)'을 쓴 대자(도 25-1)³⁴는 부드럽게 꺾인 완곡한 필세에서 조맹부의 해서 범서로 널리 전파되었던 <증도가 證道歌>(도 26)의 골격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또 송유(宋儒)들의 명구를 쓴 중자(도 25-2)는 행초 자형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맹부의 <빈풍칠월 幽

³¹ Wen C. Fong, "Yuan Renaissance,"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pp. 420-427; Cao Baolin, "Self-Expression versus Ancient Tradition: Calligraphy of The Song, Jin, and Yuan Dynasties," *Chinese Calligraph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p. 284-2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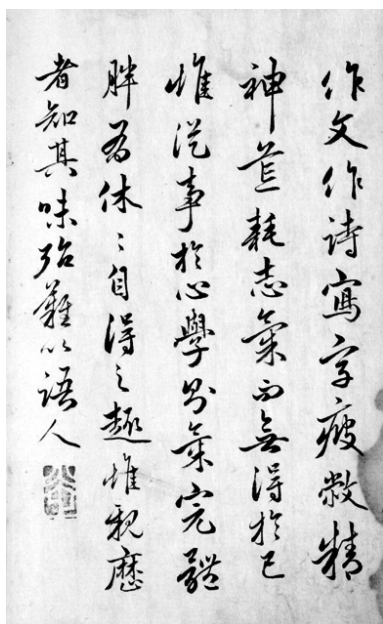
³² 李完雨, 「조선시대 松雪體의 土着化」, 『書藝學』 第二號(韓國書藝學會, 2001), pp. 249-271; 「安平大君 李瑢의 文藝活動과 書藝」, 『美術史學研究』 246·247(韓國美術史學會, 2005. 9), pp. 73-115 참조.

³³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研究』, 도 27, 도 90 참조. 그림 아래의 발문 말미에 "丙子六月大雨中, 書于安山之靜谷松林僧舍, 付佶兒 豹菴."이라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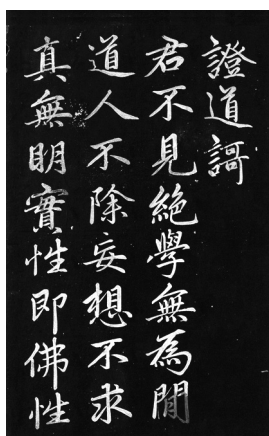
³⁴ 『禮記』 권15 「孔子問居」, "天有四時, 春秋冬夏…… 清明在躬, 氣志如神, 耆欲將至, 有開必先…… 此文武之德也."; 권16 「中庸」,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弗能弗措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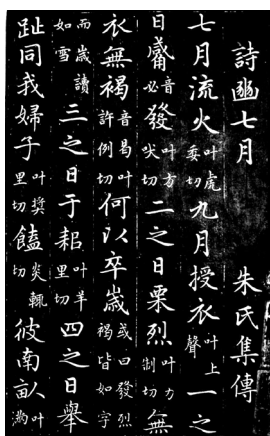
도 25-1 강세황, 〈楷行 孔子語句〉, 1744년, 《忝齋漫筆》 28.4×18.8cm 線粧, 개인.



도 25-2 강세황, 〈행초 宋儒銘句〉부분, 1744년, 《忝齋漫筆》 28.4×18.8cm 線粧, 개인.



도 26 趙孟頫, 〈證道歌〉, 搨本 26.7×16.5cm 帖粧,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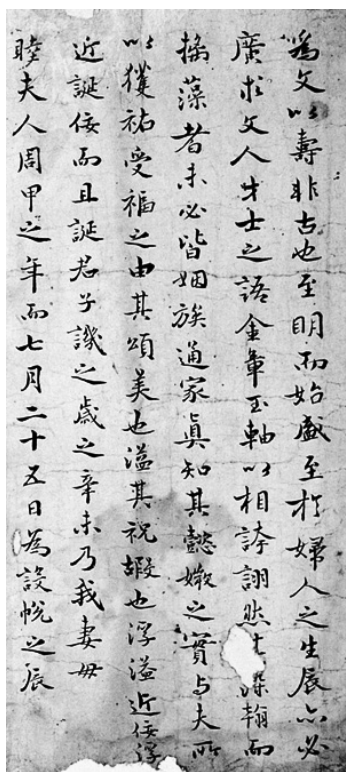


도 27 趙孟頫, 〈鬮風七月〉, 搨本 약27×16cm 帖粧, 수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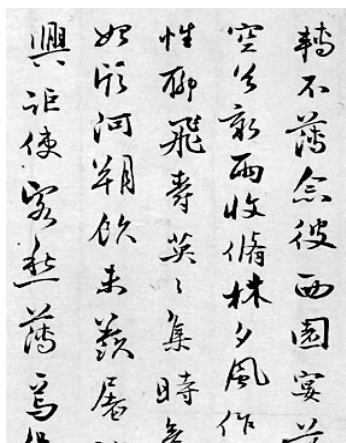
風七月〉(도 27)과 같은 단아한 해서 범서의 틀을 잘 보여준다.

강세황은 1740년 3월 모친 광주 이씨의 상을 당했다. 상을 마친 뒤 갈 수록 가난이 심해지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32세 때인 1744년 겨울에 처가가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했는데, 이 《참재만필》이 바로 안산시절의 가장 이른 필적으로 송설체의 수용을 명시해주는 예이다. 표지

의 제첨(題簽) 글씨도 강세황의 자필로 여겨진다. 강세황이 1766년(54세)의 지문(誌文)에서 안산으로 이주한 뒤 '절대로 생계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문사와 필연으로 자였했다' 했듯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화수련을 시작했던 듯하다. 즉 이왕 서예를 깊이 이해했던 미불과 조맹부를 통해 고전 서풍의 골격을 다잡아갔던 것이다.



도 28 강세황, 〈睦夫人周甲壽序〉 부분, 1761년, 38.3×128.2cm,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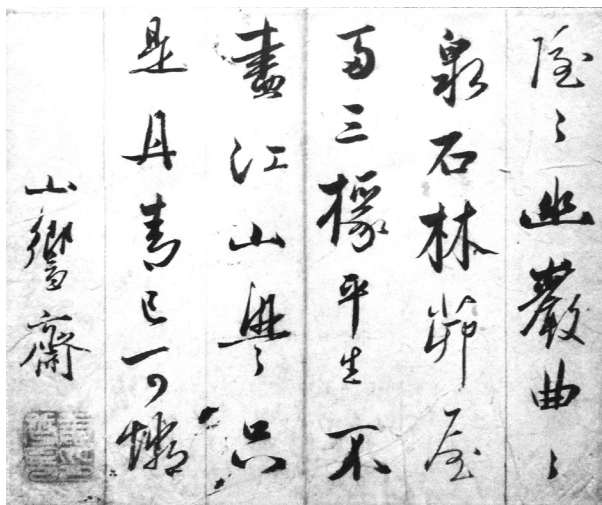
도 29 강세황, 〈女亨勝集詩〉 세부, 1747년, 34.9×106cm, 개인.

《첨재만필》에 나타난 조맹부 서풍은 이듬해인 1745년(33세) 7월에 쓴 〈칠태부인경수연도서 七太夫人慶壽宴圖序〉에도 잘 나타난다. 이 서문은 친우 권국진(權國珍, 字朝彦)이 지난 1691년(숙종 17)에 열렸던 일곱 태부인의 장수축하 잔치를 묘사한 그림에 서문이 빠져 있자 강세황에게 추서(追書)를 부탁한 것이다. 긴밀한 짜임과 유려한 필획에서 조맹부 행서의 특징을 잘 소화해냈다.³⁵ 이러한 서풍은 그 뒤로도 지속되어 1761년(49세) 7월에 장모 목부인(아내 진주유씨의 모친)의 회갑연에 해행(楷行)으로 써 올린 〈목부인주갑수서 睦夫人周甲壽序〉(도 28)를 보면, 보다 단아한 필획과 부드러운 필획으로 자신만의 서풍으로 체화했음을 보여준다.

다음 조맹부 행초 서풍을 보여주는 예로 1747년(35세) 6월의 〈현정승집시 玄亭勝集詩〉와 1748년(36세) 여름의 《첨재화보 添齋畫譜》 서발(序跋)·제시(題詩)가 대표적이다. 먼저 해암(海巖) 유경종(柳慶種 1714~84) 등 모임에 참석한 여덟 사람의 오언·칠언시를 쓴 〈현정승집시〉를 보면(도 29), 글자 틀이 납작하고 글자 윗부분이 큰 송설체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점획과 운필이 변화롭고 자태가 많다. 또 산수인물 8폭과 화훼사생 5폭을 그리고 자신의 서문과 칠언 제시 6폭 및 처남 유경종의 발문을 쓴 《첨재화보》의 글씨도 그런 예이다. 그중 명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동양(李東陽 1447~1516)의 칠언절구를 쓰고 ‘산향재(山響齋)’라 낙관한 제시를 보면(도 30), 한해 전의 〈현정승집시〉에 비해 짜임이 보다 긴밀하고 점획도 명료하다. 이들 글씨를 조맹부의 행초 〈적벽부〉(도 31)와 비교해보면 서로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기필을 강조하는 등 상이점도 나타나는데, 이는 필시 미불 서풍이 혼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행초풍은 1751년(39세)의 〈도산도발 陶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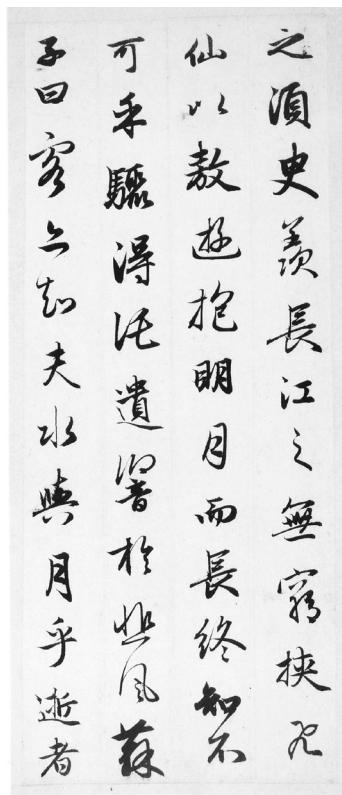
³⁵ 『표암 강세황』(국립중앙박물관, 2013), p. 52, 참고도판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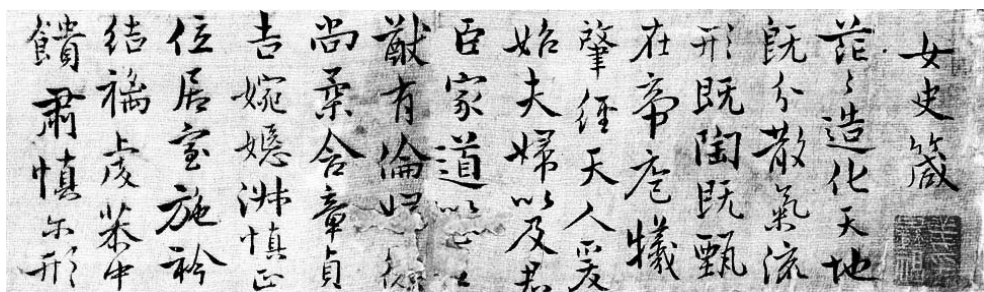
도30 강세황, <행소 李東陽詩>, 1748년, 18.7×22.2cm, 《忝齋畫譜》帖, 개인.

跋》을 지나 1753년(41세)의 <무이구곡도권 武夷九曲圖卷>에 쓴 무이도가(武夷神歌), 1756년(44세)의 <여사잠 女史箴>, 1761년(49세)의 <무이도첩발 武夷圖帖跋> 등의 40대 필적 곳곳에 나타난다. 그중 1756년 8월에 종손(從孫)姜이복(姜彝福)에게 시진 장화(張華 232~300)의 「여사잠」을 써준 행서(도 32)는 점획이나 자형에서 조선 초기의 송설체 명필 안평대군 이용의 <송엄상좌귀남서 送嚴上座歸南序>(도 33)에 비교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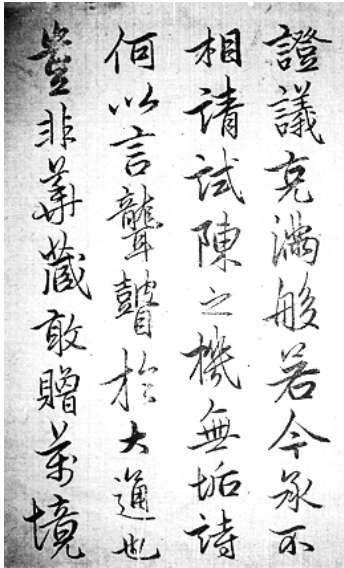
이처럼 강세황이 중년에 조맹부 서풍을 수용한 것은 자신이 지향했던 서예적 이상이 조맹부가 추구했던 바와 다르지 않았으며 왕희지 고법에 다가설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로 여겼기 때문이



도31 趙孟頫, <행소 後赤壁賦> 부분, 1301년, 臺北國立故宮博物院.



도32 강세황, <행서 女史箴> 부분, 1756년, 絹本 7.6×13.9cm, 개인.



도33 이우, 〈送嚴上座歸南序〉 부분, 草本摹書 21×10.7cm 帖粧, 개인.

다. 다만 30대 이후 미불과 조맹부의 서풍을 함께 수용함에 따라 강세황 글씨에 ‘미조서풍(米趙書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40대 행초에 그런 경향이 많다. 그러다가 50대 이후로는 미불 서풍이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조맹부 서풍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4. 明代 諸家의 서풍

강세황은 이왕과 미불·조맹부 외에 명나라 여러 명필의 글씨도 수용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강세황의 수택본으로 전하는 《국조서법 國朝書法》이다. 이 법첩은 명나라 사람의 필적만을 실은 단대(單代) 법첩으로 모일상(茅一相)³⁶이 찬집하여 보한재(寶翰齋)에서 모각했다. 모일상의 서문에 따르면 전국 명가에 소장된 유묵 백여 종을 모아 1561~85년에 모두 16권을 간행했다고 한다.³⁷ 명나

라 문인·서화가 102명의 필적과 이에 딸린 제발과 인장까지 새겼으며, 필적 내용은 옛사람 또는 자신의 시문 및 서화 제발·고법 임서 등 다양하다.³⁸ 강세황의 수택본으로 권6·8·10 세 첩이 전하는데, 뒷면 배접지에 그의 서화 필적이 여럿 남아 있다. 유명한 시문을 쓴 것, 다른 법서나 《국조서법》의 글씨를 임서한 것, 그리고 간간이 매화·국화·산수 그림도 끼어 있는 묵희(墨戲)와 같은 필적이다. 그중 권10 뒷면에 1737년(25세)의 기년이 있고 권8 뒷면에 1752년(42세)의 기년이 있어 대략 젊어서부터 중년 초기에 걸친 필적으로 여겨진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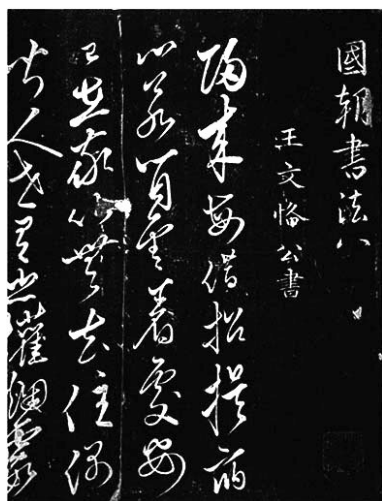
강세황이 《국조서법》에 실린 필적을 임서한 예로 권8 문각공(文恪公) 왕오(王鏊 1450~

³⁶ 茅一相: 字國佐, 號泰華·康伯, 浙江歸安人, 光祿寺丞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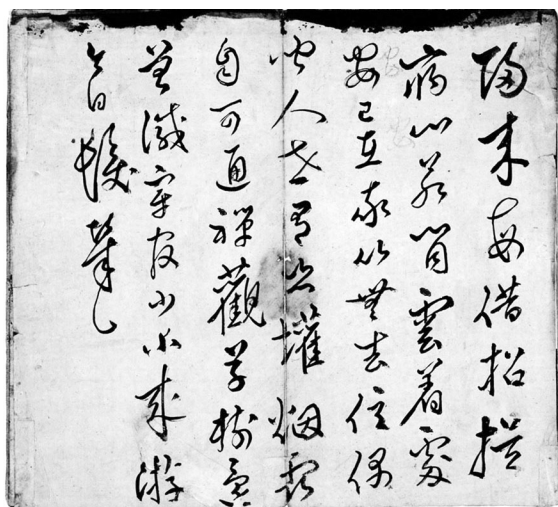
³⁷ 서문 “國朝名人書法 兆於寶賢 惜其嘗冊一欄 覽者憾之. 此帖計十六卷 凡百餘種 皆遍求海內名家所藏前人遺墨 勒諸石者 墨蹟既不易得 臨摹亦非俗手可與 或歲摹一卷或半卷 自辛酉至今乙酉始訖 積寶製器 聚狐成裘 爲工者苦心矣. 特其耳目所不及 或及之而力未能購者 責當與博雅之士共之.”

³⁸ 容庚編, 『叢帖目』三(香港: 中華書局, 1981), pp. 952~961 寶翰齋國朝書法條 참조. 명초의 명필 宋謙·宋克·宋璠·沈度·沈粲, 초서 명필 張弼·吳寬·李東陽·劉珏·姚綬, 그리고 李應禎·沈周·陸深을 비롯하여 吳中四才의 祝允明·文徵明·唐寅·徐禎卿과 文彭·文嘉·文伯仁·王穀祥 등의 추종자, 浙派의 豐坊, 江左詩派의 기수 王世貞·屠隆, 개성과 서예가 王寵·徐渭 등의 필적 수록.

³⁹ 강세황 수택본 《國朝書法》 권6·8·10의 수록 필적과 背面書에 대해서는 李完雨, 『豹菴 姜世冕의 行書風』, 『표암과 18세기 조선의 문예동향』 표암 강세황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예술의전당, 2004) 참조. 印影으로 권8 말미에 [晉山之後]·[姜世冕印]·[光之]·[姜世冕]·[靜妙]·[添齋] 등 찍혀 있음.



도34-1 明 王鏊, 〈초서 宿華嚴寺〉, 탑본 24.9×13.8cm, 《國朝書法》 권8,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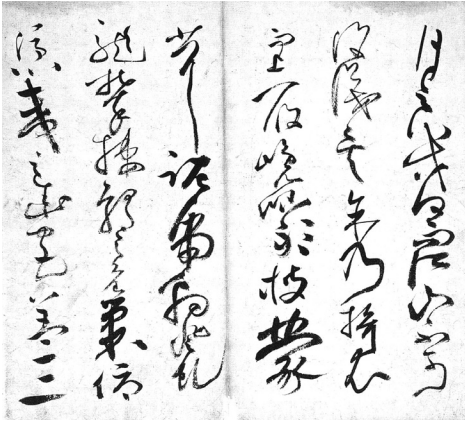
도34-2 강세황, 〈초서 宿華嚴寺 印서〉, 24.9×27.6cm, 《國朝書法》 권10, 개인.

1524)의 칠언율시 〈숙화엄사 宿華嚴寺〉를 쓴 것이 권10 뒷면에 전하며(도 34), 권10 지산(枝山) 축윤명(祝允明 1460~1527)의 〈위후호내 衛侯好內〉를 쓴 것이 권10 뒷면에 전한다. 이들 임서는 어느 정도 형태를 따르긴 했으나 운필과 획법에서 아직 원자의 필의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다. 바로 앞의 〈초결백운가 印서〉와 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그 앞에 1737년작 행서가 실려 있어 이들 임서가 형임(形臨)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젊은 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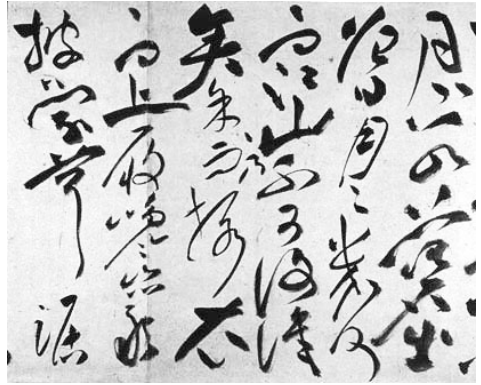
다음으로 축윤명의 초서풍을 수용한 필적도 전한다. 강세황의 30대 필적으로 추정되는 《침재첩》에는 전술한 소해 필적 〈낙신부〉와 함께 북송 소식의 「후적벽부 後赤壁賦」를 방일한 필적으로 쓴 초서가 실려 있다(도 35). 이를 축윤명의 〈초서 후적벽부〉와 비교해보면 좌우상하로 어지럽게 뻗힌 분방한 운필, 천연스럽게 일그러진 자형, 글자 크기와 획 굵기의 변화, 곳곳에 구사된 점법(點法) 등에서 서로의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도 36). 다만 강세황 초서에서 행간을 좀 벌린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초서풍은 《침재첩》과 같은 바탕에 같은 크기의 《표암첩 豹菴帖》에 실린 필적으로 북송 구양수(歐陽脩 1007~72)의 「추성부 秋聲賦」를 쓴 초서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⁴⁰

이러한 거칠고 질박한 서풍과 관련하여 강세황의 특이한 초서가 전한다. 1748년(36세) 4월에 안산의 취암서당(鷲巖書堂)에서 처남 유경종의 사촌인 유경용(柳慶容 ?~1753,

⁴⁰ 『豹菴 姜世晃』(예술의전당, 2003), p. 43 참조.



도35 강세황, <초서 後赤壁賦> 부분, 28.8×32.4cm, << 忝齋帖 >>, 개인.



도36 祝允明, <초서 後赤壁賦> 부분, 31.3×1001.7cm 卷粧, 上海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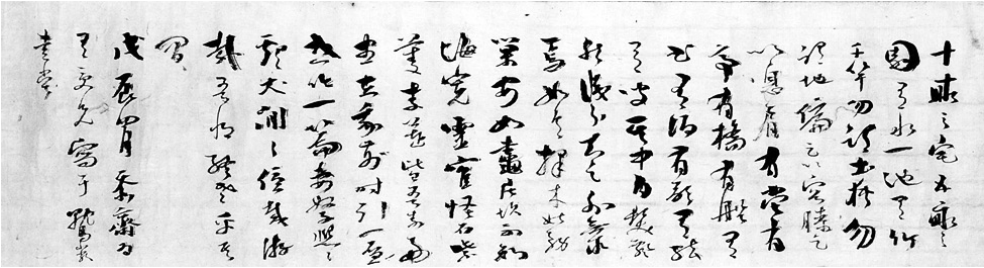
字有受)을 위해 당나라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지상편 池上篇」을 그림으로 그리고 초서로 써준 것이다(도 37). 앞쪽에 '지상편도'라는 미불 풍의 거친 제서가 있고 그 좌우에 "이 두 루마리는 포치가 의외로 좋고 필세가 초일(超逸)하다…… 닳은 붓으로 쓴 본문은 더욱 기이하니 안노공(顏魯公: 안진경)의 <제질문고 祭姪文稿>와 같다"는 발문이 쓰여 있다.⁴¹ 그림 다음의 <초서 지상편>은 발문대로 끝이 닳은 붓으로 썼기 때문인지 획법이 거친데다가 운필도 매우 방일하다. 발문에서 <제질문고>와 같다고 한 평은 안진경(顏真卿, 709~785) 행초의 전형을 닮았다는 뜻보다는 외형에 구애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필의에 대한 찬사인 듯하다. 여하튼 이 필적은 질박과 무작위를 추구했던 축윤명의 서풍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 물론 이러한 서풍은 <초서 지상편> 이전에 도 이후에도 보이지 않지만 강세황이 안산시절 초기에 다양한 서풍을 시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밖에 강세황은 노년예 명나라 후기 문인서화가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서풍도 썼다. 동기창은 역대 서화에 대한 이해가 넓었던 인물로 특히 미불의 서화를 깊이 애호했고 미불의 서화론에 따라 평담(平澹)과 천진(天真)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글씨에 있어 미불 행초를 수용하되 외형적 특징인 편측을 털어내어 담박하고 평온한 서풍을 구사했다.⁴²

1749년(37세)의 <방동현재산수도>로 짐작되듯이 강세황은 중년 초부터 남종화에 관심을 갖고 동기창 화풍을 익혔던 것에 비해 동기창 서풍은 좀 뒤늦게 수용했다. 그는 77세 때인 1789

⁴¹ 발문, “此卷, 鋪置式好, 筆勢超逸, 政不怪樂天其人而樂天其文也. 王元美倩友人, 作此圖書此篇, 恨無以見之. 此卷可以當之, 或以不並着妻孥鷄犬爲病, 此苛論也. 禿毫書本文又奇, 如顏魯公祭姪文矣. 嗟歎不足, 遂書以識之. 戊辰首夏小望雨中.”

⁴² Xu-Bangda, “Tung Ch'i-Ch'ang's Calligraphy,” *The Century of Tung Ch'i-ch'ang 1555-1636* vol. 1 (Kansas City: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2), pp. 105-132.



도37 강세황, <池上篇圖卷>, 1748년, 지본수묵담채·묵서, 20.3×237cm 개인.

년에 미우인(米友仁 1074~1153)·황공망·심주 등의 산수도 9점을 방(倣)하고 《십죽재화보 十竹齋畫譜》에 실린 난죽·화조·괴석 9점을 방한 뒤 각각의 그림에 대한 화평과 제시를 써서 서화첩으로 남겼다.⁴³ 그중 앞쪽 산수도 7점의 화평 말미에 각각 “其昌(3번)/其昌法/其昌識/臨其昌書/臨其昌”이라 써서 동기창의 글과 글씨를 임서했음을 밝혔다.⁴⁴ 그중 동기창이 황공망의 (부춘산도 富春山圖)를 기억으로 그린 그림과 이에 대한 동기창의 화평을 임서한 필적(도 38)은 동기창이 황공망의 화풍을 방하여 그린 <강산추제도 江山秋霽圖>의 제사(題辭)와 매우 닮았다(도 39).



도38 강세황, <臨董其昌書畫>, 1789년, 각25.8×18cm, 《豹翁先生書畫帖》, 일민미술관.

또 강세황은 73세 때인 1785년 정월에 청나라 건륭제의 천수연(千壽宴)에 조선의 부사로 참가했고 그 때 하사받은 어제시(御製詩)를 차운한 오언시를 비롯하여 동행한 정사 이휘지(李徽之 1715~85)와 자신 및 서장관 이태영(李泰永 1744~1803)이 응수한 칠언율시, 그리고 사행에 관한 소지(小識) 및 북경 천주당(天主堂)에 갔던 일 등을 필사해놓았다. 그 서첩 앞뒤 이면에 '수역은파(壽域恩波)'라 쓴 대자 제서도 안진경체에 바탕을 둔 동기창의 해서

43 金亮均, 『豹菴 姜世晃의 <豹翁先生書畫帖>』, 『東國史學』 第45輯(東國史學會, 2008), pp. 1-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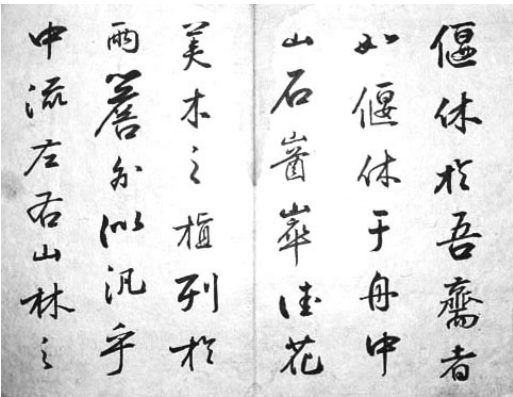
44 『豹菴 姜世晃』(국립중앙박물관, 2013), pp. 178-193 豹翁先生書畫帖 참조.



도39 董其昌, 《江山秋霽圖》부분, 37.9×137cm 卷軸, 클리블랜드미술관.



도40 강세황, 《壽域恩波 제서》, 1785년, 22.7×26.2cm, 《壽域恩波》帖, 절두산순교박물관.



도41 윤순, 《행서歐陽脩 畫舫齋記》부분, 17×22cm, 《白下手蹟》帖, 수원박물관.

풍을 따른 예이다(도 40).

이처럼 강세황이 노년에 동기창 서풍을 수용한 것도 미불 서풍의 경우처럼 백하 윤순으로부터 비롯된 듯하다. 윤순은 후년에 미불을 깊이 애호했던 동기창의 서풍을 수용하여 ‘미동서풍(米董書風)’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주었다(도 41).⁴⁵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가 중국의 서화자료가 점차 전해지면서 명대 서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특히 동기창의 회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문사들 사이에서 동기창의 글씨를 수용하기 시작했던 것과 관련될 것이다.⁴⁶

Ⅲ. 조선 후기 18세기 書藝史와 강세황

표암 강세황은 1744년(32세) 겨울에 서울 생활을 접고 처가가 있던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한 뒤 이왕(二王) 즉 왕희지(王羲之)·왕헌지(王獻之)의 서풍을 법으로 삼고 북송 미불(米芾 1052~1107)과 원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서풍을 수용하는 등 본격적인 서예 학습을 시작하였다. 이왕의 고법은 그의 소해(小楷)에 잘 나타나며 행초에서는 기본 자형으로 나타

⁴⁵ 李完雨, 「白下尹淳과中國書風」, 『美術史學研究』206(1995. 6), pp. 43-66 참조.

⁴⁶ 조선 후기 동기창 화풍의 수용은 韓正熙, 「董其昌과 朝鮮後期 畫壇」, 『美術史學研究』193(1992. 3), pp. 5-32; 韓正熙, 「朝鮮後期 繪畫에 미친 中國의 影響」, 『美術史學研究』206(1995. 6), pp. 67-97 참조.

난다. 또 미불 서풍은 주로 행초에 보이며 조맹부 서풍은 해서에도 보이는데, 30~40대 필적에는 ‘미조서풍(米趙書風)’으로 섞여 나타나기도 했으며 50대 이후로는 미불 서풍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특유의 서풍을 이루어갔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그가 54세(1766) 때 지은 「표옹자지 豹翁自誌」에서 “서법이왕(書法二王) 잡이미조(雜以米趙)”라고 자술한 그것이다. 마치 그가 산수화에서 원나라 왕몽(王蒙)·황공망(黃公望)을 전범으로 삼고 그들의 화풍을 계승한 명나라 심주(沈周)·동기창(董其昌) 등의 화풍을 더해 고상한 화격을 이루어낸 것과 유사하다. 또 강세황은 이것을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도 잘하는 일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그저 감흥을 풀고 뜻에 맞게 이를 뿐이었다”·“흥이 날 때마다 옛 법서 서너 줄을 임시하여 한산하고 맑은 취미를 붙였다” 했듯이 진정한 문인서화가의 정신도 전해주었다.

이러한 강세황의 서예는 조선 후기 18세기 서예사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가 고전 서예의 전통을 꾸준히 견지했다는 점이다. 즉 초년에 선배 이광사(李匡師 1705~77)의 변화롭고 개성적인 서풍을 따랐고 한 때 명나라 축윤명(祝允明 1460~1527)의 거칠고 질박한 초서풍도 익혔지만, 결국에는 왕희지·왕헌지의 글씨를 근간으로 고법에 이헤가 깊었던 미불과 조맹부의 서풍을 크게 수용해갔다. 18세기 미불 서풍은 윤순(尹淳 1680~1741)에 의해 선도되어 이광사·강세황·조윤형(曹允亨 1725~99) 등으로 이어지면서 널리 유행되었으며, 조맹부 서풍은 조선시대 전반기에 풍미했고 이후로도 왕실이나 보수적인 서가들에게 이어졌다. 그런데 강세황의 중년 행초에 자주 보이듯이 미불과 조맹부의 서풍이 섞여 나타난 경우는 서예사 상으로 드물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강세황의 노년 행초는 미불과 조맹부와 다르며 미불 서풍을 구사한 선배들과도 다른 특유의 ‘표암체(豹菴體)’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대 서예에 대한 강세황의 시각이다. 그가 평소에 “왕희지의 올바른 맥이 당나라 사대가(唐四大家)에 있으니 시대가 가깝기 때문이다. 황정견(黃庭堅)·채양(蔡襄)은 당나라를 본받았고 문징명(文徵明)·축윤명은 송나라를 본받았으니 지금 사람은 명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했듯이 고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대로부터 단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명대 글씨를 두루 익히고 조맹부와 미불 글씨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왕의 고법에 다가서고자 했던 것이다. 또 노년에 미불 서화를 애호했던 동기창(1555~1636)의 서풍을 수용한 것도 그런 뜻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전대의 윤순이 왕희지를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고법에 바탕을 둔 당송원명(唐宋元明) 여러 명필들의 글씨를 널리 수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강세황이 미불·동기창 서풍을 수용한 것도 바로 윤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강세황은 전서와 예서에도 관심을 두어 고인의 필의를 자득했다고 자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의 전예는 이광사·이인상(李麟祥 1710~60)·조윤형·이한진(李漢鎭 1732~1815) 등 18세기 전예 명필이 진대소전(秦代小篆)과 한당예(漢唐隸)에 근거하여 구사했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여하튼 강세황은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문인명필로 여러 추종자를 낳았는데, 그의 자손을 비롯하여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의 남인계 문사가 있으며 특히 미불·동기창 서풍의 애호는 신위(申緯 1769~1845)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⁴⁷

*주제어(Key Words) 강세황(姜世晃, Kang Se-hwang), 표암체(豹菴體, Pyoam-che), 윤순(尹淳, Yun Sun), 이왕(二王, Wang Xi-zhi·Wang Xian-zhi), 미불(米芾, Mi Fu), 조맹부(趙孟頫, Zhao Meng-fu), 동기창(董其昌, Dong Qi-chang).

■ 투고일 2013년 9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29일 ■

⁴⁷ 강세황 자손의 서화는 『豹菴 姜世晃』(예술의전당, 2003), pp. 305-317 참조. 정약용과 신위의 글씨는 『詩書畫 三絶 紫霞 申緯 回顧展』(예술의전당, 1991); 『丁若鏞 250』(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예술의전당, 2012) 참조.

참고문헌

1. 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豹菴遺稿』,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明文徵明輯, 《停雲館帖》, 1560년 摹刻, 12권 12책, 27.5×13.5cm, 藏書閣 C3-138.

明馮銓輯, 『涿拓快雪堂帖』, 北京: 紫禁城出版社, 1991.

2. 단행본

김종진·변영섭·정은진·조송식 옮김, 『표암유고』 청명국역총서 12, 지식산업사, 2010.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研究』, 一志社, 1988.

容庚編, 『叢帖目』, 香港: 中華書局, 1980.

국립중앙박물관 편, 『豹菴姜世晃 -시대를 앞서 간 예술혼』 탄신 30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2013.

서울서예박물관 편, 『丁若鏞 250』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예술의전당, 2012.

서울서예박물관 편, 『豹菴姜世晃 -푸른 솔은 늙지 않는다』 한국서예사특별전 23, 예술의전당, 2003.

예술의전당 편, 『詩書畫 三絶 紫霞 申緯 回顧展』, 예술의전당, 1991.

문화재청 편, 『한국의 옛글씨』 조선후기명필, 대전: 문화재청, 2010.

Lothar Ledderose, *Mi Fu and the Classical Tradition of Chinese Calli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Ouyang Zhongshi, Wen C. Fong etc, *Chinese Calligra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eter C. Sturman, *Mi Fu: Style and the Art of Calligraphy in Northern Song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Wai-kam Ho ed, *The Century of Tung Ch'i-ch'ang 1555-1636* 2 vols. Exhibition catalogue, Kansas City: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2.

Wen C. Fong,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3. 논문

- 金亮均, 「豹菴 姜世晁의 <<豹翁先生書畫帖>>」, 『東國史學』 第45輯, 東國史學會, 2008.
- 金智娜, 「松下 曹允亨 書藝 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徐承禮, 「朝鮮後期 米芾·董其昌 書藝의 수용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李完雨, 「白下 尹淳과 中國書法」, 『美術史學研究』 206, 韓國美術史學會, 1995. 6.
- 李完雨, 「安平大君 李瑬의 文藝活動과 書藝」, 『美術史學研究』 246·247, 韓國美術史學會, 2005. 9.
- 李完雨, 「貝嶠 李匡師의 書藝」, 『美術史學研究』 190·191, 韓國美術史學會, 1991. 9.
- 李完雨, 「조선시대 松雪體의 土着化」, 『書藝學』 第二號, 韓國書藝學會, 2001.
- 이완우, 「조선 후반기 宋明代 서예의 유형」,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第10回 全國美術史學大會, 도서출판 藝耕, 2007.
- 이완우, 「豹菴 姜世晁의 行書風」, 『표암과 18세기 조선의 문예동향』 표암 강세황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예술의전당, 2004.
- 鄭明兒, 「豹菴 姜世晁 書藝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崔完秀,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晁)의 삶과 예술」, 『間松文華』 84 -豹菴과 朝鮮南宗畫派-.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3.
- 韓正熙, 「董其昌과 朝鮮後期 畫壇」, 『美術史學研究』 193, 韓國美術史學會, 1992. 3.
- 韓正熙, 「朝鮮後期 繪畫에 미친 中國의 影響」, 『美術史學研究』 206, 韓國美術史學會, 1995. 6.

국문초록

표암 강세황은 1744년(32세) 겨울에 안산으로 이주한 뒤 본격적인 글씨 학습을 시작하여 二王 즉 동진 왕희지·왕헌지의 고전 서풍을 법으로 삼고 北宋 米芾(1052~1107)의 활기차고 변화로운 서풍과 元 趙孟頫(1254~1322)의 복고주의 서풍을 더해갔다. 이왕의 고법은 그의 小楷에 잘 나타나며 행초에서는 기본 자형으로 나타난다. 또 미불의 서풍은 주로 행초에 보이며 조맹부의 서풍은 해서에도 보이는데, 30~40대 필적에서는 ‘米趙書風’으로 섞여 나타나기도 했으며 50대 이후로는 미불 서풍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자신만의 서풍을 이루어갔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1766년(54세)의 『豹翁自誌』에서 “書法二王 雜以米趙”라고 자술한 그것이다. 이는 마치 강세황이 산수화에서 元 王蒙·黃公望을 전범으로 삼고 그들의 화풍을 계승한 明 沈周·董其昌 등을 학습하여 특유의 고상한 문인화풍을 이루어낸 것과 유사하다.

강세황의 서예는 18세기 서예사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가 고전 서예의 전통을 꾸준히 견지했다는 점이다. 즉 한때 선배 李匡師의 변화로운 서풍이나 明 祝允明의 거친 초서풍을 따르기도 했지만, 이왕을 근간으로 하여 고법에 이해가 깊었던 미불과 조맹부를 크게 수용해갔고, 노년에는 미불 서풍에 바탕을 둔 明 董其昌의 평담한 서풍도 수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역대 서예에 대한 강세황의 시각이다. 그가 “왕희지의 올바른 맥이 당나라 四大家에 있으니 시대가 가깝기 때문이다. 黃庭堅·蔡襄은 당나라를 본받았고 文徵明·축윤명은 송나라를 본받았으니 지금 사람은 명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했듯이 고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대로부터 단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전대의 명필 尹淳(1680~1741)이 왕희지를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唐宋元明 명적을 널리 수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으며, 특히 강세황이 미불·동기창 서풍을 수용한 것도 윤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강세황은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문인 명필로서 여러 추종자를 낳았는데, 그의 자손을 비롯하여 丁若鏞(1762~1836) 등의 남인계 문사가 대표적이며, 미불·동기창 서풍의 애호는 申緯(1769~1845) 등에 의해 19세기로 이어져갔다.

Calligraphic Style of Kang Se-hwang

Yi, Wan-woo *

Kang Se-hwang(姜世晃 1713-1791) was a representative calligrapher and painter of the late Joseon period. His full-fledged artistic study was begun after moving to Ansan from Seoul in 1744 at the age of 31. In calligraphy he based on the classical style of Two Wangs(二王: Wang Xi-zhi & Wang Xian-zhi) of the Eastern Jin and intensively learned the animated style of Mi Fu(米芾 1052-1107) of the Northern Song and the revivalistic style of Zhao Meng-fu(趙孟頫 1254-1322) of the Yuan period.

In his works, Two Wangs style distinctly appears in small standard script and basic character form also appears in running script and cursive script. And Mi Fu style mainly appears in running and cursive script and Zhao Meng-fu style appears in standard script too. Number of works in his thirties and forties were mixtures of Mi style and Zhao style, but after fifties he emphasized Mi style and gradually changed it in his own style. In the autobiography(1766, age of 53) he said "In calligraphy I emulated Two Wangs and added with Mi & Zhao(書法二王 雜以米趙)." This process is quite similar with the fact that he emulated the styles of Wang Meng(王蒙) and Huang Gong-wang(黃公望) of the late Yuan period and mastered the following styles of Ming literati painters as Shen Zhou(沈周), Dong Qi-chang(董其昌) and so on, finally he accomplished an elegant and reposed painting style.

In the calligraphy history of the 18th century he could be evaluated from two aspects. Firstly, he pursued the tradition of classical calligraphy. That is, he once intimated the vigorous style of Yi Gwang-sa(李匡師) and the wild style of Zhu Yun-ming(祝允明), but he consistently followed the styles of Mi Fu and Zhao Meng-fu who had a deep understanding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n the classical style. And in his old age he also accommodated the mild style of Dong Qi-chang, a devotee of Mi Fu.

Secondly, it is the viewpoint of him on the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He always professed “The proper successor of Wang Xi-zhi was the Four Tang Masters(唐四家), Song calligraphers studied Tang, and Ming calligraphers studied Song, therefore our contemporaries could not but emulate Ming.” That is, one should study from the near period to understand the ancient classic. This is quite similar with the way that Yun Sun(尹淳 1680-1741) held an ideal to Wang Xi-zhi but he widely studied the styles of later masters. He was a famous calligrapher led the style of Mi Fu and Dong Qi-chang in the late Joseon period.

Anyway, the calligraphy of Kang Se-hwang was followed by his descendents and literati figures as Jeong Yak-yong(丁若鏞 1762-1836), and particularly the preference for Mi Fu style and Dong Qi-chang style was succeeded by later calligraphers as Shin Wi(申緯 1769-1845).